

# 10년만에 '구미호'가 다시 뜬다

'구미호뎐', '간 떨어지는 동거' 2개 드라마 남자 구미호 등장 웹뮤지컬 드라마 '구미호 카페' 채식하는 구미호 설정 폭소탄



'예쁘게 생긴 구미호는 잊어라!' 안방극장에 '수컷 구미호'가 나타났다. 이동욱, 김범, 장기용(왼쪽부터)이 각각 주연으로 나서는 드라마 '구미호뎐'과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구미호로 변신하고 시청자들을 놀린다. 스포츠동아DB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구미호가 새롭게 시청자들을 놀릴 전망이다.

과거 무더위를 날려주는 남량특집극의 단골 아이템이었지만, 저조한 시청률과 제작비 절감 등 이유로 2010년 KBS 2TV '구미호외전' 이후 안방극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구미호가 10년 만에 '환생'한다. 하반기 방송 예정인 tvN 드라마 '구미호뎐'과 '간 떨어지는 동거' 그리고 웹뮤지컬 드라마 '구미호 카페'를 무대 삼는다. 특히 예쁜 여인으로 변신한 여우가 아니라 남자 구미호가 등장한다는 점으로도 벌써부터 호기심을 자극한다.

도시엔 정착한 구미호와 그를 쫓는 프로듀서의 이야기를 그리는 '구미호뎐'의 구미호는 이동욱과 김범이다. 두 사람은 '구미호 형제'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이야기로 그려낸다.

이동욱은 예전엔 백두대간을 다스리는 산신이었으나 지금은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며 괴담이라는 이름에 숨어 현세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처벌한다. 외모

와 운동능력 등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독선적인 성격이다.

2016년 SBS '미세스 캅 2'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는 김범은 이동욱의 배다른 동생이자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구미호다. 조보아가 괴담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 PD 역할을 맡아 이들과 연인다.

또 다른 남자 구미호는 장기용이다. 그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마 '간 떨어지는 동거'의 주연을 맡았다. 인간이 되고자 수백 년 넘게 살아온 '수컷' 구미호이다. 극중 '어르신'이라 불리며 역겹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으며 이야기를 펼쳐간다.

퓨전 장르를 표방하는 드라마는 익히 알려진 구미호 전설에 인간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준다는 유리구슬의 판타지 요소를 가미해 이야기를 풍성하게 꾸민다. 현재 방송사 편성을 논의 중이다.

방송가에서는 두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남자 구미호라는 설정을 얼마나 현실감 있게 풀어내 표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시청자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어설픈 캐릭터 분장만으로는 "진부하다"는 평가와 함께 외면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웹뮤지컬 드라마 '구미호 카페'는 눈길을 끌 만하다. 천년 전 사랑을 이루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구미호가 채식 카페를 운영하며 소중한 인연의 환생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다. 인간의 간을 빼먹는 구미호가 아니라 채식하는 구미호라는 설정으로 웃음을 자극한다. 이미 좋은 반응을 얻으며 뮤지컬과 국악을 결합한 창극 스타일의 영화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One pick

업 앤 다운



결혼 앞둔 헤림, 웨딩촬영도 화제만발 NCT 태용, 학창시절 학폭 논란 재점화

'7월의 신부'가 되는 가수 헤림이 소속 그룹이었던 원더걸스 멤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팬들의 부러움을 샀다.

태권도선수 신민철과 7년 열애 끝에 7월5일 결혼하는 헤림은 최근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를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룹 멤버였던 가수 유빈, 선미, 연기자 안소희 등이 축하 파티를 열어 주는 모습이 22일 방송됐다. 이들이 카메라 앞에 함께 선 것은 무려 3년 만이다. 해외에 거주 중인 선예와 "축가를 위해 자작곡을 준비 중"이라는 예은(하필트)도 영상 통화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누리꾼들은 2010년대를 가요계를 휩쓴 원더걸스의 변함없는 우정에 보기 좋다는 반응과 헤림을 향한 축하를 동시에 쏟아냈다.

아이돌그룹 NCT127의 멤버 태용은 학창시절에 한 경솔한 행동 때문에 한 주 내내 곤욕을 치렀다. 작년 10월 태용이 외모 비하 등을 하며 학교 친구를 괴롭혔다고 주장한 중학교 동창생 A씨가 22일 "태용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 하면서다. SM엔터테인먼트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한 바 있다"고 반박하면서, A씨가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태용을 비난하는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 코로나19 시대, 예능도 '생사의 기로'

'정글의 법칙' 방송중단 '편애중계' 종영 국내로 눈돌린 '더 짠내투어' 방송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방송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방송 무기한 중단을 선택했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아예 콘셉트를 새롭게 바꿨다. 위기 속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관련 제작진의 고민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방송인 김병만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해외의 오지를 탐험하는 SBS '정글의 법칙'은 코로나19 여파로 출국길이 막히면서 6일 방송을 잠정 중단했다. 2011년 10월 첫 방송 이후 9년 만이다. 제작진은 상반기에 진행하려던 해외 촬영을 7월 중순으로 미뤘으나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최근 모든 계획을 취소했다.

올해 더 이상 해외 촬영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국내를 무대로 삼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핵심인 '오지 생존기'를 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현 시국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7월 10일 종영하기로 한 MBC '편애중계'도 엇비슷한 실정이다. 자연을 보낸 시청자들이 녹화에 참여해 고민을 풀어내는 콘셉트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종영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방송을 중단했던 '더 짠내투어'는 발 빠르게 국내 여행을 새롭게 소개 삼아 30일 다시 방송한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인 '가성비 여행'을

국내 여행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다. 이달 초 제주도를 시작으로 최근 경남 통영과 거제 등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촬영을 재개하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제작진은 25일 "현장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연자인 방송인 박명수도 최근 SNS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의미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tvN '유 퀴즈 온더 블럭'과 SBS '트롯신이 떴다' 등도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대만 실재로 옮겨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각 제작진 모두 "이전처럼 야외촬영을 진행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짹 짹 채워줍니다.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출출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

www.infodb.co.kr